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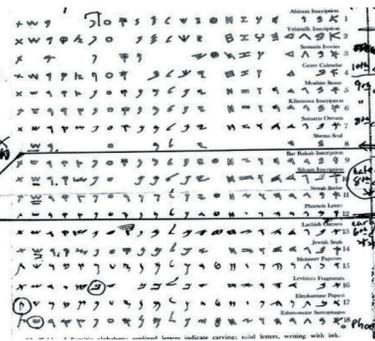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유기천 박사, 저서 <세계혁명>에서 주장

“한국인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10지파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그린슈타인(Ed. Greenstein) 교수는 고대 히브리어에 관한 몇 안되는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서 와당의 글자는 BC 8~6세기에 사용된 글자가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히브리어는 그동안 18회 변모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학자는 드물다고 한다.



히브리어 문자표는 18회 변천됨에 따라서 바뀐 글자들이 다. 위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바뀌었는데 와당에 새겨진 문자는 중간 순서로 바뀌어진 부분(9~12번)에 속한다고 그린슈타인 교수(사진)는 말한다. 도표 여백에 펜으로 써여진 부분은 그린슈타인 교수가 설명한 흔적들이다.

저명한 형법학자고(故) 유기천 박사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혁명>에서 주장하였다. 유 박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사이에 나타난 광범위한 공통점 29가지 사례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다. 아바(Abba)라는 히브리어와 한글의 아빠(daddy)가 같은 의미이다. 신랑을 신부의 집에 데려가기 위하여 가마가 사용되었다. 삼베옷을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입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 7일간의 애도기간을 가졌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도장을 사용하고, 흰옷을 즐겨 입고, 결혼 풍습 중에 중매쟁이가 있다 등이다.

월 18일 (주)지학사에서 발행한 <세계혁명>에서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은 매우 신비한 국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사이에 나타난 광범위한 공통점 29가지의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바(Abba)라는 단어는 한국과 히브리어에 모두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아바(아빠)이다. 마가복음 14:36, 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6.
2. 삼베옷은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입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러하였다. 이사야 22:12, 창세기 37:34-35.
3. 공식적인 서명을 표시하기 위하여 남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만든 형적(形迹)인 도장은 한국과 이스라엘 문화에 공통적이다. 창세기 38:18.
4. 백의민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자주 입는 흰옷은 정결과 순결함을 의미하며 장례식 때 입는다. 전도서 9:8, 요한계시록 3:5,18, 4:4.
5. 전문적인 유급 중매쟁이가 한국과 유대인에 공통적이다.
6. 한국과 전통적인 유대문화에서 신랑을 신부의 집에 데려가기 위하여 가마가 사용되었다.
7. 두 나라에서 여인들은 베일을 사용하였다(한국어로는 ‘수건’).

8.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 7일간의 애도기간(히브리어는 ‘시비shivá’)은 히브리어와 한국문화에서 행해지고 있다.
 9. 전통적인 유대와 한국 문화에서는 모두 집에서 신발을 벗는다.
 10. 한국인이나 유대인 모두 교육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 이외에도 한국인과 이스라엘 인들이 곡물을 운반하기 위해 마대를 사용한 점, 청동접시를 사용한 점, 추석과 같은 국가적인 감사절기가 있다는 점, 아버지나 아들이 결코 같은 이름을 갖지 않는 점, 가발을 여자들이 흔히 사용한 점 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였다. 유 박사는 영어로 <세계혁명>을 저술하였고, 후학인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가 번역하였다.*

형법학자로 유명한 고 유기천 박사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책이 발견되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유 박사는 2014년 12

월 18일 (주)지학사에서 발행한 <세계혁명>에서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은 매우 신비한 국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사이에 나타난 광범위한 공통점 29가지의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천은 1943년 일본 도쿄(東京)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법과대학 학장(1951, 1961), 사법대학원 원장(1962)을 거쳐 제9대 총장(1965~66)을 역임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로 촉발된 ‘6·3사태’(1964) 직후 학생시위가 끊이지 않던 1965년 8월,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학생의 자유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총장직을 수락했다. 그러나 ‘서울대 좌익 침투설’ 기자회견(훗날 1948년의 국내반 운동 당시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함)과 학생시위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총기 휴대를 요청하는 등의 언행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사 1966년

11월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유기천은 변함없는 반독재 지식인이었다. 1971년 3월 경찰이 학생지도자의 후두부를 곤봉으로 내려쳐 쓰러뜨리고 경찰차에 실어가는 등 학생시위를 과잉진압하자 그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그 해 10월 군대가 서울대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체포해 간 사태를 헌법상의 ‘탄압죄’로 단죄하는 등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른바 ‘총통제’ 발언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자유중국(지금의 타이완)의 총통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그 해 11월 초부터 1972년 1월까지 도쿄생활을 해야 했으며, 결국 서울법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후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을 떠났다. 망명지는 세계적인 형법학

자인 그의 아내 헬렌 실빙이 살고 있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였다. 그가 말한 총통제는 그가 망명한 지 9개월 만에 ‘10월 유신’으로 결국 현실화되었다. 유기천은 망명 중 샌디에이고대학교 등에서 법학을 강의하다 유신체제가 몰락한 뒤인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귀국해 서울대에서 다시 형법 강의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신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5·17사태’ 이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다. 유기천은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1973년 중앙정보부(지금의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의문사한 자신의 제자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망진상 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저서로 <세계혁명 The World Revolution>·<형법학>·<한국 형법전> 등이 있다.

출처 브리태니커(다음백과사전)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5)

“구원은 오직 자유율법으로만 된다”

오늘날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일은 자유율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경이다, 불경이다, 고서다 하여 말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긴자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필요가 없다. 전도할 때 의심하는 식구들에게 이긴자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필요한 것이며 의인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둔한 자들은 경서나 고서 따위를 가지고 그 속에 뭐 좋은 게 있느냐 여 운통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도, 불

경도, 고서도 그 주인공이 나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다만 이긴자가 분명한지, 구세주가 확실한지, 생미륵불이 틀림이 없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자격을 갖추고 영생을 얻는 데는 경서나 고서 따위가 아무 필요가 없다. 구원은 오직 자유율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 온통 정신을 쏟아라. 슬데없이 서적을 들춰가며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우지 마노르 전 이스라엘 대사

“이스라엘 고대왕국시절 사라진 ‘단’ 지파, 고조선의 단군일 가능성이 있어”



우지 마노르 전 이스라엘 대사

2005년 8월 7일 한국을 떠나는 우지 마노르(82) 이스라엘 대사는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민족이 단지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원 시절 국제관계를 공부하였고, 전공이 동북아 지역이었는데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대왕국 시절 12개 부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 미스터리예요. 그 ‘사라진 부족’의 성이 단(Dan)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 아 낚니까. 재미있죠?” (2005년 8월 1일 조선일보에서 발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때 무한한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세계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보는 세상이 객관적이라고 착각하여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충돌이 더욱 우리 주변을 혼돈의 세계로 만들고 있다. 여러 과학자들도 이 세상이 환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불경의 팔만 사천 법문을 280자로 요약하여 주문과 같이 우리의 주변에 널리 알려진 반아심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색(물질)의 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아심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불경 전체의 공(空)사상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랫부분이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행심반야 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 조건오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역(度一切苦厄) 관자재보살은 사물을 사고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반야는 큰 지혜를 말하며 바라밀다는 열반의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번역하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아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空)함을 통찰하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마음은 마음을 낼 때와 마음을 내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을 내면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 말로 나타난다. 마음을 내지 않으면 즉 생각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요, 모든 고통과 괴롭, 문제가 사라진다고 불경의 공(空)사상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와 내가 없는 하나의 상태다. 마음

을 내면 너와 내가 생겨 그때부터 고통과 괴롭과 문제가 생겨난다. 이 사실을 ‘세도나 메서드’의 주인공 레스터 레븐슨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인류는 원래 아무런 한계가 없는 전체로서 타고난 자연스러운 존재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빈곤을 없애려면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체라고 하는 최초의 분리된 감각인 에고의 느낌을 놓아 보내고 우리 본래의 자리에 존재하면 그대로 완벽해진다.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가진 무한한 존재임에도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계없는 행복이아발로 우리 자신의 참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완전한 깨달은 존재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가 아닌 에고만을 놓아 보내는 일만이 남는다. 우리의 에고를 물리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우리 무한한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고 레스터 레븐슨은 말한다. 반아심경과 레스터 레븐슨의 말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겨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다. “나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드러나는 삶 속에서 이기신 하나님이 임하시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윤금옥 기자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라는 결정적인 증거 대동강변 출토된 와당(瓦當) 속의 히브리 문양(文樣)



도착했다는 뜻이 기록된 와당인데 아래 부분에 문양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를 적어놓았다. 위 히브리문자표와 맞추어 볼 수 있다.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12지파 중 사라진 단지파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분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승리제단의 구세주 조희성 선생이다. 조희성 선생은 1981년 설교 중 “박물관에 가면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왓장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문자가 써여 있으니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였고 “청년들이 박물관을 찾아가서 그 기왓장을 사진을 찍어서 서울대 신사훈 박사에게 가서 거기 써여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신사훈 박사는 히브리어로 “도착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오염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뜻의 글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리제단에서는 위와 같은 신사훈 박사의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권위있는 학자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입증받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다 인류



문화 고고학회 강연회 부회장이 2008년 3월 14일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교(Bar Ilan University) 고대 성경 히브리어 전문가 그린슈타인(Ed. Greenstein) 교수를 만나 그로부터 대동강변에 출토된 와당의 문양이 고대 히브리어라는 확인을 받았다. 그린슈타인 교수는 고대 히브리어에 관한 몇 안되는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서 문자표(문자가 시대에 따라 변경된 모양)를 보여주면서 와당의 글자는 BC 8~6세기에 사용된 글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